원진레이온 산업재해[1] 관련자 1차 구술(집담)

1. **구술자**: 박무영, 박치성, 한창길
2. **면담자**: 강희영
3. **촬영자**: 이대희
4. **구술일자**: 2012년 3월 6일
5. **구술장소**: 경기도 구리시 원진산업재해자협회 사무실
6. **구술분량**: 09분 47초 / 일부 공개
7. **주요내용**: 초선의원 시절 '원진레이온 사건' 진상조사 활동

박무영 : 처음 환자들 접했을 때인데 (1988년) 칠(7)월 달 정도 접해서 칠(7)월 한 이십이(22)일날 정도인가요? 칠(7)월 이십이(22)일 처음 접했었고. 상태를 보고 그때 저희가 바로 보도자료를 썼어요. 보도자료를 써서 한겨레신문의 각 주간지에다 보냈고 그게 한겨레, 조선일보 등 이런 데서 보도가 되면서 사회에 다시 한 번 환기되는 상황으로 치닫게 됐고. 노동부 쪽에서 그때 당시는 뭐 (태도가) 거의 고무줄이었죠. 잡아당기면 늘어나고 놓으면 오그라드는 고무줄적인 그런 거여서 자기네들도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에 시늉을 좀 내야 되는 정도로 해서 움직이는 상태가 계속 좀 보였고. 그렇지만 회사 측에서는 뭐 '대충 저러다가 말지 않겠느냐' 정도의 상태였지만 그래도 환자들 자체가 몸 상태가 좋지도 않고. (반면에) 현장에

---

1) 원진레이온(주)은 국내 유일한 비스코스 인견사(레이온)를 생산하는 공장이었다. 1964년에 일본 도요레이온(東洋레이온; 약칭 도레이)사의 중고기계를 들여와 1966년에 처음 가동되기 시작한 이 공장에는 노동자를 보호하려는 안전설비가 결여되어 수많은 노동자를 이황화탄소(CS2)에 노출시켰다. 원진레이온 방사과에서 14~18년 이상 장기 근무하였던 정근복 외 4명의 노동자들은 이황화탄소 중독으로 인해 퇴사하고 개별적으로 치료를 받던 중 1987년 1월 청와대와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당시 노동부는 조사를 통하여 최초로 이황화탄소에 의한 직업병을 인정하였고, 산재 요양을 승인하였다. 이후 근로자들은 2~9등급의 장해 보상을 받고 치료를 종결하였으며, 회사는 4명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1인당 600만원의 민사배상금을 지급하고, 합의서를 공증하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원진레이온에 근무하는 방사과 근로자들의 특수건강진단과 방사과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이 시작되어 1988년 1월 퇴직근로자 2명이 직업병 판정을 받기에 이른다. 원진레이온 산업재해 문제가 확대된 직접적인 이유는 1987년 4인 진정사건의 당사자들이 그해 7월 제출한 재요양신청이 이미 장해급여까지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구리노동상담소의 제보를 받은 한겨레신문은 1988년 7월 22일자에 1987년 진상조사를 요구했던 원진레이온 퇴직 근로자 4명의 비참한 상황, 원진레이온 공장의 유해 작업환경과 직업병 환자에 대한 사직 강요 등 불법노동행위를 노동부가 눈감아준 문제를 보도하였고, 본격적으로 공론화되기에 이른다. 1988년 7월 23일 구리노동상담소의 제안으로 '문송면 군 수은중독사건 대책위'에서 활동했던 단체와 개인이 원진 관련 대책위를 결성하고, 1988년 8월 4일 박영숙, 노무현 의원 및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회원 등으로 구성된 진상조사반이 노동부 의정부지방사무소와 현장을 방문하여 자료수집,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9월 14일 국회 박영숙 의원실에서 회사와 원진레이온직업병피해자가족협의회가 피해자 보상 등 12개항에 1차 합의를 보기에 이른다. 그러나 이후 최종 합의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의 어려움은 계속됐다. <안전보건연구동향 Vol.32>, 2010 참고

있는 사람들도 직업병에 대한 심각성을 그렇게 크게 그 당시에는 못 느꼈고 바깥에서도 이게 어떤 정도 사안인지는 그렇게 크게 못 느꼈다가 환자들이 끊임없이 회사 항의방문하고 그리고 나서 세 번째, 팔(8)월 초에 팔(8)월 일(1)일인가? 그때 회사를 항의방문하면서 사장실 점거를 하면서 귀중한 자료가 나온 거죠. 그때 당시까지는 거의 은폐돼있던 사건이. 뭐 이백오십(250)만 시간 무재해[2], 뭐 표창들도 받고 산재환자가 없는 걸로 나왔는데. 거의 뭐 서른세 명 정도의 공상처리[3] 한 것도 나왔고. 작업환경이 심각하다는 것도 회사 자료에서도 나왔고 임금이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 기타 여러 가지가 나오면서 우리가 인제 그때 당시 알았죠. (그 자료를) 노무현 전 대통령한테 전달해줬어요[4].

면담자 : 아, 전달하던 상황 좀 기억나세요?

박무영 : 그때 저희가 전달할 때 누가 자료를. 회사에서 사장실을 점거를 해서 보니까 (점거하고) 있어봤자 소용이 없겠더라고요. 그래 쭉 보니까 사장 캐비넷 같은 걸 쭉쭉 열어보니까 반짝반짝한 게 있어요. 보니까 이백오십(250)만 시간, 그리고 임금 떼어먹은 걸 해가지고 그거를 야, 이건 분명히 우리가 봤을 때 문제가 있다고 봤어요. 자료를 갖고 노 전 대통령한테 갖다 드렸어요. '아, 인제 문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좀 이렇게 희망 섞인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아, 이제 해결할 수 있다. 좋은 징조다' 그러면서 인제 적극적으로 나서서 입장 표명을 했어요. 그분이 지금 이제 고민했던 부분이 뭐냐면 회사 측하고 공증을 다 했어요. 민사배상도 공증을 하고 노동부에서도 다 처리를 하다 보니까 이거 자체를 뒤집힐 게 없는, 다 이 자체가. 회사 측의 잘못된 걸 찾아내야 되는 건데요. 그거에 대해서 답답했죠. 분명히 회사가 잘못됐는데 이걸 뒤집으려면 사회적인 도덕성 문제를 갖고 해야 되는데. 상황을 쭉 보니까 회사 측에서 나온 자료가 엄청난 문제가, 공상처리 한 거나 인건비 일억칠백만(107,000,000원) 떼어먹은 거나 그런 걸 놓고 봤을 때 회사나 노동부가 굉장히 부도덕하다는 걸 보면서 '아, 이거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걸 했던

2) 1988.08.06일자 한겨레신문과 동아일보에는 구술자의 이야기처럼 무재해 250만 시간으로 보도되고 있으나, 이후 구체적인 수치가 제시된 1991.04.26. 동아일보 보도와 국가기록원 나라기록의 원진레이온 사건개요(http://contents.archives.go.kr/next/content/listSubjectDescription.do?id=001583)에는 무재해 2만5,000시간으로 기록되어 있는 바 무재해 기록 관련 시간은 2만5,000시간으로 보임.

3) 업무 상 사고·질병 등에 대한 사업주의 배상

4) 1988년 7월 22일 한겨레신문에 원진레이온의 실태가 보도된 이래 당시 초선의 국회 노동위 소속 노무현 의원은 박영숙 의원,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회원 등으로 구성된 진상조사반의 일원으로 1988년 8월 4일 노동부 의정부지방사무소와 현장을 방문하여 자료수집,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진상조사 활동에 참여했다. 1988년 9월 14일 1차 합의서에는 당시 노무현 의원의 친필 서명이 들어 있다. 이후 1989년 회사 측과 피해자 및 그 가족 간의 2차 합의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 편에서 노 의원의 활동이 이어졌다.

것 같아요. 이제 자료를 갖고 노동부를 혼낼 수가 있죠. 이렇게 확실하게 드러나 버리고 아파서 쓰러진 사람, 그리고 치료를 계속해야 되는데도 이렇게 일방적으로 정리해버렸다는 자체가 증거로 드러나 버리니까 회사 측이나 노동부 쪽에서도 자기네들이 암담한 거죠.

면담자 : 그러면은 직접 당시에 공장에도 방문하신 걸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이제 받고 나서 공장을 오셨던 건가요?

박무영 : 그렇죠. 그 자료를 바로 팔(8)월 일(1)일 날로 농성하면서 (입수)하고 바로 그걸 자료를 국회 거기로, 노 전 대통령한테 전달을 했고. 그래서 검토를 하고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회사 방문하기 전에, 노동부 의정부지방사무소를 먼저 방문을 했어요. 걸(거기)로 가가지고 거기서 그 양반들한테 자료 다 내놓으라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뭐 이렇게까지 완전히 이제 노동부 쪽에서 인제 궁지에 몰린 거죠.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걸 다 알고 있으니까 자기네들 숨기려야 숨길 수가 없잖아요. 다 이야기를 하고 거기서 이제 증거를 갖고 회사 측에 온 거예요. 또. 회사 측에 와가지고 '이 일이 이렇게 문제가 심각한데 좀 보자' 해가지고. 회사 사장들이 온다고 하니까 긴장이 됐었죠. 우리는 온다고 해서 미리 기다리고 있었고. 의원님들이 세 분이 그때 세 분이었을 거예요. 아마 한광옥, 노무현, 이상수, 박영숙인가 세분인가? 세분인가 네 분이 왔는데. 와가지고 바로 이렇게, 사장을 놔두라고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가만있으라고. 현장 간다' 그러고 바로 방사과부터 들어갔어요. 들어가면서 '어휴, 어휴' 한숨 쉬면서 들어가시더라고요.(웃음) '어휴, 어휴' 안타까운가 그냥 '어휴, 어휴' 하더라고요. 그분들이 현장을 보면서 그리고 보고 나서 사장 면담을 하면서 '어떻게 해결할거냐' 그러니까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죠, 저기서는. '죄송하다,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

한창길 : 원진레이온 이황화탄소[5]가 상당히 진짜 독했습니다. 그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방사과 직접 들어와 가지고 사람들 모아놓고 얘기도 하고 저하고 나오면서도 얘기도 하고 그럴 정도로 그때 그 가스 많은데도 거기를 마다않고 들어와서 직접 체험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좀, 그때는 좀 젊으셨는데도 다른 사람은 방사문 열고 이렇게 해서 들어가다가 (냄새가) 냅다 쏘니까 들어가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외부 사람들은.

박무영 : 그 작업환경 측정 자체를 측정하는 기관이 회사 측에 (미리 알려줘서) 언

5) 원진레이온에서 생산했던 인견사는 펄프를 재료로 하며, 펄프에서 실을 뽑아내는 과정에서 대량의 이황화탄소(CS_2) 등 화공약품이 투입된다. 이황화탄소는 2차대전 때 독일이 신경독가스의 원료로 쓴 치명적인 유해물질로, 일시 대량흡입 시 질식사하고, 장기간 흡입 시 뇌신경을 마비시킨다. 각주2)의 국가기록원 나라기록 참고.

제 몇 시에 방문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회사 측에는 걸리지 않기 때문에 평상시보다도 환경 확실히 좋아지는, 환기를 시켜버리고 뭐하고 그런 다음에 측정을 하니까. 평상시 예를 들어서 뭐 사십피피엠(40ppm), 오십피피엠(50ppm) 나왔다 해도 이미 조치를 취하니까 아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나오는. 그렇게 했죠. 그래서 아마 노 대통령께서도 그런 거를 감안을 했기 때문에 아마 제가 봤을 때 아까 위원장님이 '불시에 회사 안을, 그 안에 들어가 봐야겠다. 눈으로 봐야 되겠다, 어떤 건지. 자료만 보는 것이 아니라 현장을 좀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갖고 그때 당시에 앞장서서 들어가고 거기서 힘든데서 많은 그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 앞에서 이야기를 좀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박치성 : 처음 봤을 적에는. 저는 직접 본 거는 의원회관에 먼저 가갖고 거기 가서 봤어요. 팔십구(89)년도 합의 볼 때까지 계속 찾아뵌 게. 그때 찾아뵌 게. 가면은 다 챙겨주세요. 뭐뭐뭐 물어보면은 노동부에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그걸 다 가르쳐 주세요 대충. 그래갖고 거기서 많이 도움을 받았고요 이(2)차 합의도 보게 됐고. 또 뭐 말을 하려니까(웃음) 하여간 많은 덕은 봤습니다. 하여튼 간에 저희가 뭐 그렇다고 저희가 밥 한 그릇 사드린 것도 아니고 차비 한번 드린 것도 아니고 그냥 없는 살림에 일 해갖고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박무영 : 근데 지금 쭉 보게 되면 국회 노동위쪽에 있다 해도 현장에 감이 있고 아픔을 느끼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깊이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이거 자체를. 왜 그러냐면 이 양반이 지금 쭉 되짚어 봐도 이 양반들이 대충 자료만 보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현장을 직접 한번 보는 거예요, 체험을. '진짜 어떤 건데?' 그래갖고 아까 얘기한, 푹 들어간 거예요. 가가지고 '어휴, 어휴' 하더라고요. 힘든 상황, 열악한 과연 저런데서 사람이 일할 수 있겠는가 라는. 현장을 방문을 하면서 현장에 대한 경험도 있었고 그 뒤로 이삼(2~3)년 지난 다음에 개인적으로 한번 만난 적은 있어요. 연세대 노천강당에서 노동자집회 할 때 한번 만났는데 물어보시더라고요. '원진 환자들 잘 있냐'고. '잘 있습니다, 덕분에' 그랬더니 '좀 어떻게 하십니까?' (물었더니) '내가 힘 있습니까?' 그러시더라고.(웃음) 개별적으로 한번 그때 한 이(2)년인가 삼(3)년 지난 뒤에? 연대 거기서.

■ 박무영 주요이력

1958. 전북 정읍 출생

1988.01 - 1993.08 구리노동상담소장

■ 박치성 주요이력

1958. 경기도 포천 출생

1981. 원진레이온 후처리과 입사

1988. 이황화탄소 중독증 판정

■ 한창길 주요이력

1944. 경기도 남양주 출생

1970. - 1982. 원진레이온 방사과 근무

1981. 원진레이온 노조위원장

1992. 이황화탄소 중독 판정

1999. - 2012. 원진산업재해자협회 위원장

구술자 박무영은 구리노동상담소 소장으로 일하던 중 원진레이온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피해 상황을 접하고 이를 언론에 알리는 등 피해자 구제활동에 앞장섰다. 구술자 박치성과 한창길은 1988년 원진레이온에서 일하던 산업재해 피해 당사자이다. 원진레이온 산업재해가 공론화 할 당시 국회 노동위원회 소속 노무현 의원은 진상조사반의 일원으로 현장을 방문 조사하는 등 피해자 지원활동에 나섰다. 1988년 9월 14일 1차합의서에는 노 의원의 친필 서명이 들어있다.